

母校開校71周年

◇5月8日로 개교71주년을 맞은 母校는 民族的 英才의 산실로 生動感이 넘친다

<사진·東國祝典이 한창인 石造館주변>

여기 學問의 聖火는 이땅의 등불이 되었다

— 이땅에 새 歷史를 創造하리라 —

매머드綜合大學으로 雄飛

東國의 탄생!。그것은 未明의 아침을 여는 큰 光明, 큰 智慧, 큰힘이었다。

71년전인 1906년 舊韓末, 기울어지는 國運을 바로잡고 無知한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新學問을 계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佛教界의 覺者들이 三寶의 淨財를 모아 우리나라 최초의 官許 佛教교육기관을 설립하였으니, 바로 모교의 前身인 明進學校의 發이 되었다。이후 혜화전문학교등의 校名을 거쳐 1953년 다시 東國大學校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佛教大, 文理大, 法政大, 經商大, 農林大, 工科大, 師範大의 7개단과대학과 46개 學科, 大學院, 行政大學院, 經營大學院의 매머드 합대학으로 雄飛하고 있는것이다。

역사가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하여 性의 눈빛이 영롱한 3만여 同門을 길러낸 저력의 東國이 있는限, 이나라 族의 장래와 人類의 앞날은 밝기만 다。가슴마다 높푸른 理想과 오직 義氣에찬 젊은 모습으로 이땅에 새역사를 창조하리라!。

東國이여, 여기 學問의聖火높이들렸다

開校71周年紀念式거행

長期勤續·勤務者표창

지난8일(日)로 개교71주년을 맞이한 모교는 지난9일(월) 10시30분 체육관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 71년의 빛나는 大學史를발판으로한 建學理念의 구현과 힘찬도약을 다짐했다。李瑄根총장, 戴九동창회장, 尹嘉重이사장등 교내외인사와 재학생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된 이날 기념식은 三歸依禮로 시작, 東國大學校 연혁보고, 총장식사(4면)〉理事長告辭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金慈雲총무원장 崔戴九동창회장 축사(4면)가 있었다。이어서 教職員중 20년장기근무한 金鐘遠、근속한郭鍍淳씨등 장기근속, 근무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있었는데 20년근속 1명, 20년근무 1명, 10년근속 7명, 10년근무 1명등으로 이들에게는 理事長 표창장과 總長 감사패, 금메달및부상이 수여되었다。

東友會報 創刊 1주년 祝詩

<사진高女弘益女高교사·人詩>

우리의 山脈은 한맥으로

善 申 洪

꼬개 속여 걸다가도
문득 치어다 보이는 것
씻은 듯이 잊고 홀로 가다가도
더러 보이는 것
東國이여
깊은 골 높은 山頂으로 萬木을 기르면서도
외지로 큰 자식을 다 내보낸、」
근심 떠여 선
어미의 자태로
의연하나니

이제 그대의 품과 무릎을 떠나
누구는 벼랑 위라도 걷고
누구는 길가에 비켜서
그저도 신끝을 매고 있으나
누구는 험한 길 건너
의젓이 큰 제집도 짓고 있으나
아、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 모두 마음밭에 가장 純한
얼굴 하나 기르나니
東國의 얼굴 기르나니

가다 오다
정신과 살이 우리 곤하거든
도리운 그늘、옛어미의 품안을 찾기도 하느니
여기
그품안을 다시 솔고 모여
東友會報
어느듯 첫돌을 맞도다。
우리 떠나고 헤어져
사바의 곳곳을 겨자씨이듯 적시어도
우리 東國人 모두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등과 등을 이어、」
더욱 우람한 山脈을 이루어
달려왔느니
아、東友會報
라보는 저 앞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은 山脈의 기백으로
뻗으리라。

〈70年·國文〉

東友會報

發行人 崔 戴 九
編輯人 尹 天 泳
印刷人 金 泰 東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㉗8568
交換 ㉗8131~9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祝) 東國大學校開校71周年
東國大學校同窓會員一同

이젠 안심하세요!
自動車綜合保險
◎한국자동차보험조합회사
(26) 3111~5

祝 創刊1周年 東友會報 慶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長 尹 喜 重
理事 朴映岩 吳綠園
金呑虛 高光德
李瑄根 金甲洙
鄭在哲 鄭世鉉
監事 李商兆 金遺腹
事務局長 鄭 洙 魯

東國大學校
總長 李瑄根
大學院長 張庚鶴
行政大學院長 申國柱
經營大學院長 許 衛
佛教大學長 洪庭植
文理科大學長 李龍範
法政大學長 崔 奭煥
經商大學長 錢昌源
農林大學長 權寧大
工科大學長 沈載厚
師範大學長 南都泳
教養學部長 李丙曦
教務處長 金仁鴻
學生處長 鄭允武
總務處長 金翰周
企劃室長 閔丙天
圖書館長 김성배
博物館長 黃壽永

言提友東

大學社會에서 발행되는 大學新聞과는 다른 또하나의 특수신문이 發行되기 시작한지도 꽤 오래된 느낌이다。이른바 特殊紙로서의 同窓會報가발행되기 시작하였고、이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오면서 學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大學新聞이나同窓會報는 모두가다 학교 중심으로 連結되어 있는 것이며、또 이를 받아드는 수용자들도 따지고보면 學校를 中心으로 상호연관을 맺고있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볼때두 新聞의 역할과 機能은별 차이가 없는 것이며、궁극적인 목표는 학교발전과 特殊社會의 連繫性을 중심으로한 유대를 강화하고 그 特殊社會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을하고있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學校新聞의연장이 동창신문이며、學校社會라는 특수사회의 구성원의 一部를 주축으로한 집결다리格인 신문이 同窓會報라고 말할수있을 것이다。

그런 觀點에서 볼때同窓會報란 그에게 職分된 바 역할과 사명은 大學新聞과 궁극적인 목표는 같을른지 모르나 동창회보가 위치하는 社會에서의 좌표如何에따라 달라지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

말하자면 母校라는 立場에서 볼때 이를 核心으로한 주변문제가 있을것이고、이에 따른 同窓들의 連繫및 紐帶와 母校에의 참여및 기여를고려하지 않을수없는 立場에 놓여 있는것이 同窓會報이다。

뿐만아니라 同窓會報의 또하나의 위치는 모교와 現實社會와의 連繫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나아가서는 國家社會와의 관계를 위한「퍼브리리레이션즈」의 역할을 다하기위하여 수준한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同窓會報의 情報수집은 이들 만드는사람들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同窓會報를 애용하는 同窓과 學校및 社會構成員들의 協力에 의하여서만이 그 맡은바本分을 다할 수 있는 것이므로 一次的으로 同窓들의 情報提供을 위하여 적극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附言 하고 싶다。

우리들의 同窓會報인東友會報의 創刊1周年을맞는 이時期에 가일층 刷新하여 同窓과 母校、나아가서는 對 社會와의架橋역할을 십분발휘하기를 바라며、앞으로의 發展있기를 비는 바이다。

〈漢陽大學校 視聽覺敎育硏究院長〉

東友會報 창간 1周年에 부친다

(卒)文科博士 英學 (52年・新聞) 張 龍



總力安保協議會企劃局長에 軍要職서 활약、大領豫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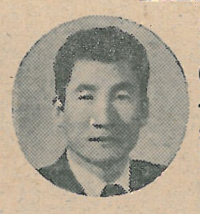


高日燮 (央中保安力總會議局長)

高日燮(49・專門) 동문이 지난4월 총력안보중앙협의회 기획조정국장으로 부임했다。사무실은시내경운동 수운회관12층。

高同門은 육군대령으로 예편、大韓通運(株) 전무이사、국제문제연구소 忠南北지부장및 六局長등을 지냈다。

財團法人 弘益會 監事부임 書記에서 理事官까지 昇進



池昌勳 (財團法人弘益會 監事)

池昌勳(52・經) 동문이 鐵道廳산하 財團法人 弘益會 감사에 부임했다。

夜間苦學으로 晩學을한 池동문은 모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鐵道廳 書記에서 理事官까지 승진했었다。

23년간 철도공무원으로 근속한 池동문은 鐵道廳공보관、서울・釜山・中央보급사무소장、교통공무원교육원 敎授部長에 이어 철도청 자재국장과 工作廠長을 역임한뒤 퇴직했다。宋喜玉여사 사이에 1남 4녀를둠。

母校서 20年長期勤務 표창 貨幣經濟學의 斯界 권위



金鍾遠 (母校 敎授 經商大學長、經營管理硏究所長등을 지냈다。)

모교 교수金鍾遠(52・經・經博) 동문이 지난5월8일 모교개교71주년기념식에서 20년長期근무표창을 받았다。

金同門은 모교 54년 졸업생으로 모교에 기여해왔다。

金同門은 後進養成에 있어서도 모교 經商大學長、經營管理硏究所長등을 지냈다。

判事生活청산코 辯護士開業 部長判事등19年間一線종사



黃石淵 (辯護士)

黃石淵(58・大院) 동문이 그간의 判事生活을 청산하고、지난 7일 西小門동 50의 1111・1112호실(한일개발빌딩 12층 3호)에 辯護士業을 개시했다。

同門動靜

本人의近況이나、주위 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 提報 바랍니다。

<略稱敬順>

安全한 투자 親切한 봉사

國一證券

서울 중구 명동1가10 ☎(776)9681~5

昇進・轉補

▲李炯基(56・佛) ‖국제신보서울支社논설위원으로。

▲文章一(61・法) ‖大韓通運(주) 天安支店長으로。

▲楊澤圭(70・國文) ‖全北 高로。 신태인읍 왕신女中

▲金善興(65・法) ‖전 설공제조합 기획과장으로 영전。

▲朴재규(61・經) ‖信用保證基金 조사1부장으로(1급조사역)。

▲김정웅(63・法) ‖군법무관에서 ○○사단 법무참모로。

出入國・其他

▲金遣腹(51・政・서울시在鄕軍人會長) ‖5월6일 KAL機便으로출국、인도네시아와의 문화교류 문제를 협의하고 21일귀국。

▲鄭在哲(52・政・信用保證基金이사장) ‖5월6일 오후6시 엽무차 渡美、5월30일 귀국예정。

▲張 龍(52・英文・漢陽大學校교수) ‖1주일간 日本 신문・放送學界를 둘러보고 5월11일 귀국。

▲柳周鎭(57・農・(株)青話商社 사장) ‖엽무차 日本・홍콩등 東南亞諸國을 2주일간 순방한뒤 6월10일 귀국。

▲金鍾洙(59・經・國一證券 사장) ‖5월13일 日本 東京에서 열리는 증권세미나에 참석코 5월말에 귀국。

▲朴贊大(62・農・고려제이드사상) ‖사업관계로 10일간 日本다녀옴。

慶吊事

▲韓應國(43・惠專) ‖次女결혼。5월17일、조선호텔 그랜드볼룸。

▲金在澤(49・전문) ‖長男결혼。5월14일 인천 신신예식장。

▲崔世和(55・國文) ‖長男결혼、5월8일 영빈관。

▲閔庚哲(69・法) ‖本人결혼、5월1일 로얄호텔。

▲서선홍(71・經) ‖本人결혼、4월30일 종로예식장。

▲黃譽元(73・經) ‖本人결혼、5월13일、신문회관。

▲朴喆鉉(73・經) ‖本人결혼、5월22일 天安아카데미。

▲金炯清(70・行) ‖本人결혼、5월1일영빈관。

▲黃哲貞(51・經) ‖長女결혼 5월28일영빈관。

▲한창표(77・行院) ‖本人결혼、5월4일을확분화회의관。

▲최두선(70・經) ‖本人결혼、5월20일 코리아나호텔。

▲권영남(70・경행) ‖충남 천원군 병천면 自宅서 父親 回甲宴

▲박승희(62・農) ‖4月28日 母親喪

▲백종수(67・應生) ‖4月25日 父親喪

▲최혁인(50・전문) ‖5月7日 本人 回甲宴

▲최상규(71・經) ‖父親(최혁인)회갑宴

▲백주흠(63・法) 김익인(65・經) ‖빙장 (최혁규)회갑宴

移轉・開業

▲김용현(49・전문・東方硏書會대표) ‖사무실을 등록구경운동47-17로이전

▲정확민(69・농) ‖마포구망원동414~16번지에 세화약국개업。

▲金敎根(65・경영・國定敎科書재부과장) ‖관악구신림4동482~42호이사

▲李泳和(57・法・西大門區廳長) ‖廳舍를 연희동山4~32번지로신축이전

▲林奎澤(61・政・한가람산업(주)전무이사) ‖사무실을 강남구신사동467의10(여성빌딩201호)로 이전

▲林升圭(69・林・進洋綜合商社대표) ‖사무실을 노량진으로 이전교개업。

칼라사진의선구
사진예술원
부설・P.A칼라종합현상소・한국사진학원
동문환영
종로2가파고다아케이트앞
TEL(73)3018(74)3018

韓國證券대체결제(株) 사장 韓銀이사등 金融系統활약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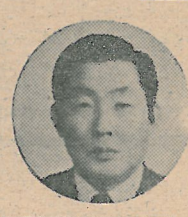
李晃錫 (韓國證券대체결제(株) 代表理事)

李晃錫(72・經博) 동문이 한국증권대체결제회사 代表理事로 취임했다。

李同門은 모교에서 증권분석등을 강의해오다가 72년 모교에서 經濟學博士 학위를 받았다。

李同門은 東京이 오대학을 졸업했으며、日本 資本이외換論과 外換論、外換管理法、證券分析등을 강의해오다가 57년부터 外換銀行에 입행、외환업무에 종사하면서 모교 經商大學 講師로 출강했다。

大韓通運民需영업부장榮轉 20여년간 同社各部署 돌아



李鍾勳 (주)大韓通運 民需營業部長)

李鍾勳(59・法) 동문이 大韓通運(주)본사 民需營業部長으로 영전했다。

李同門은 59년에 同社에 입사、감사부장、仁川支店長、영업관리실장과 大邱支店長등을 거쳐 다시本社로 발령되었다。

韓國會計士會 부회장 再選 韓善合同會計 代表會計士



朴忠煥 (公認會計士會 副會長)

公認會計士이자 稅務士인 朴忠煥(59・經) 동문이 韓國公認會計士會 副會長에 再選되었다。

朴동문은 60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63년에 開業했으며、모교 大學院을 졸업한뒤、모교에서 강의를 맡고있다。

駐日大使館購買官으로昇進 東南亞地域 현지外資 전담



卞智煥 (調達廳 駐日大使館 購買官)

調達廳 卞智煥(58・經) 동문이 지난4월20일부로 駐日大使館室 購買官으로昇進 발령되었다。

卞동문은 60년 調達廳에 들어온 이래 內外資구매및 중요물자구매와 企劃業務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日本등 東南亞지역現地外資구매및 시장조사전담책임자인 同職에 부임한것이다。

東亞建設産業(주) 理事승진 大韓通運의 主要部署 거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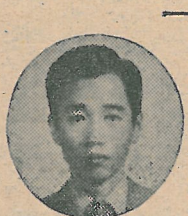


蔡奎敏 (東亞建設産業(주) 理事 海外事業擔當 管理)

東亞그룹 蔡奎敏(64・政外) 동문이 東亞建設産業株式會社로 승진되었다。

蔡동문은 大韓通運(주) 총무부장、社長비서실장、仁川支店長、永登浦・울산支店長등을차례로 역임했다。

設유류의 市場開發次 출국 歐美10餘國 돌며 資料蒐集



韓京男 (韓國쉐타輸出組合 次長)

韓國쉐타輸出組合 次長 韓京男(70・英文) 동문이 섬유류코타地域 非코타品目開發合同市場조사단원으로 20일간 歐美각국을 순회하고 있다。

韓國經濟의 展望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부회장을 거쳐 朴동문은현재 시내 태평로 삼정빌딩3・6층韓善合同會計事務所代表회계사로있다。

설립 신청 口座 대체 便郵 會本

◇알 림◇

本會는 事務局의人力不足、財政難등을타개하기 위해 지난5월13일 서울中央우체국으로부터 우편대체가입을 승인받았읍니다。口座번호는 52569번。

이 구좌를 통하여 언제든지、전국어느곳에서든 자유롭게 利用해주시기를 바라며、불입요금은 가입자인 本會가 부담케 됩니다。

대체이용시는 本會소정용지나 각우체국 환저금제에 비치된 용지에다 本會대체번호(52569번)와 각기재사항을 기입하신후 送金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年會費、理事會費、廣告料등의납부에 많은利用을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同窓會長 白

本會 제반 事業 등 論議

會長團 월례회 效率的 運營방안 모색

獎學基金造成 마무리에 最善

◇ 會長團은 지난달 30日, 4月월례회의를 열고 77年度 豫算案과 ◇ 事業計劃등을 검토하는 한편, 장학사업 마무리, 有故理事보선등 本 ◇ 會가 당면한 제반 문제점등을 집중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76 ◇ ◇ 年度 決算및 事業의 예비報告도 가졌다。

崔載九회장댁에서 文泰植 教職員표창, 최우수 입학생 金遺腹 黃明秀 朴恩會부회장과 鄭世鉉재단파견이사, 尹天泳사무국장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예산부족에 따른 運營難, 財政確保방안과 관련, 가능한限 年會費독려등으로 자체예산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회장단에 보고된 사업계획으로는①各單位회장및 총무(간사) 연석회의, ②교학술강연회에 따른 支部·支會조직의 재정비강화와 東國의 참된 이미지 부각문제, ⑤기타 제반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奬學基金조성에 관여하는 물심협찬額中 未收金을 적극독려하여 조속히 基金化시키고, 아직까지 참여하지않은 同門·職場·地域·學科·親睦모임에도 계속 협조를 다하기로 했다。

自動車保險東友會 新入會員환영회

한국자동차보험(주) 東友會(회장=李植祿)에서는 임시총회를 겸한 승진및신입회원축하회를 지난13일 오후7시 종로5가 Y음식점에서 열었다。

회원13명이 참석한이날,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李玹相(76·經院)회원에겐 고급탁상시계를, 신입회원 5명(朴哲, 黃日昌, 정성열, 이영진, 이정용)에겐 박수로써 축하했다。

또한 이자리에서는 장학기금조성마무리에 관해 1만원이상, 논문이나 보직자는 1만원이상, 성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5·16民族賞 安保部門본상



<長檢 公安部長>

大檢察廳 公安部長 韓沃申(67·大院)동문이 77년도 5·16民族賞 安保部門本賞수상자로결정되어 지난16일 청와대에서거행된同시상식에서 상금3백만원을 받았다。

韓同門은 大檢특별수사부장 재임시등의人革黨사건을 비롯한 좌익재소자 전향작업과, 동서해안에서의어부납북방지등에 공을세워 本賞을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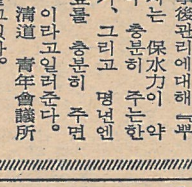
韓同門은 수상의 辯에서 『北傀와 對敵하자면 어릴적부터 철저한 정신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韓同門은 1920년 경남忠武출생으로 47년 釜山지검검사이래서울·大邱·釜山·大田地檢의부장검사, 高檢검사, 내무부治安局長, 大田·大邱지검검사장, 대검특별수사부장등요직을 거쳤다。

모교에서 碩士·博士학위를 받은 韓同門은 다방면의 활동가로 현재 大韓배드민튼협회장, 日曜畵家會長직을 맡고있다。

불교신자로 邊仁淑(52) 여사사이에 2남1녀를두었으며, 취미는 그림 독서 동산 골프등 다양하다。

話題의 얼굴



<農場經營>

慶北淸道에서 元井協業農園을 경영하고있는 朴鎭洙(66·農)동문이 손수 키운 5~6년생 가이스까(日本香木) 2백주(80만원상당)를 本會로 기증해와, 本會에서는 校內造景事業에써달라고모교로재기증했다。

朴同門은 東友會報를통해 同窓會에서 장학기금조성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을듣고, 모교에 무엇인가기여해야겠다고 생각한끝에 奬學金대신 나무를 기증키로했다고밝혔다。

학교당국은 이에따라 29·30일양일간에걸쳐 기증받은 70여주를 집중 배치하는등 교내 전역에 걸쳐 植樹했다。

朴동문은 사과밭 2만여평등 총4만여평에 달하는 원정협업농장을 갖고있다。

지난12일 本會를 내방한 朴동문은 가이스까의 事後관리에대해 『뿌리가 활착할때까지는 保水力이 좋은 樹木이될것』이라고일러준다。

한편 朴同門은 『淸道 靑年會議所 상임부회장직도 맡고있다。

日本香나무 2百株를 기증

在釜東國會 야유회

通度寺관광등 친목도모

62년 경영학과 입학동기 모임인 金營會발기총회가지난 4월22일(金) 오후6시 30분 시내 체육회관 지하다방에서 열려, 회장에 許正植, 간사에 李九永동문을 선출했다。


◇許會長

대망。

이날 야유회는 「봄」 전하기, 「맡」 전하기, 풍선터뜨리기, 夫婦間 二人三脚경기, 避球등 흥미로운 게임으로 한층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참석회원들은 『東國人의 기개를 길러야한다』는 뜻있는 모임이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야유회에는 金容彩회장이 기념타올 50매, 南基碩부회장이 버스 1대를 협찬했다。


◇金泉地區현판광경

金泉地區 創總

會長에 李憲永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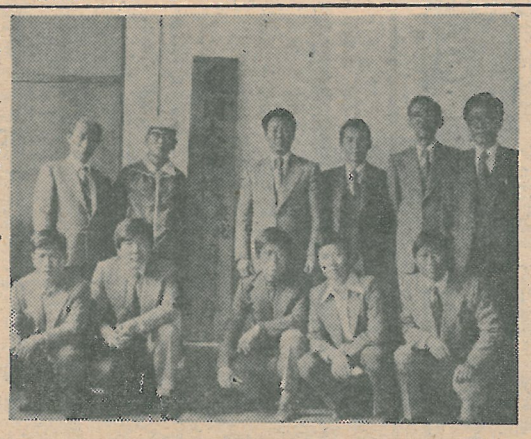
慶北 金泉地區(金泉·尙州·聞慶·店村·金陵)東友會는 지난 4월17일 10시 동해생명보험(주) 金泉支所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마치고 이어 同 건물에서 「東國大學校同窓會」 현판식을 가졌다。

회원1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李憲永(43·혜전·상주女中교장)동문을 선출했다。同會는매월 세째주 일요일 11시에 月例會를 갖기로했다。

▲회장=李憲永(43·혜전)
▲부회장=朴武(50·전문·지동국교장), 金建熙(51·史·금천고교사)
▲총무=洪翼(63·法·동해생명보험(주) 김천지소)
▲감사=李鎭鎬(43·혜전·상주女中교장), 朴鎭洙(49·전문·경주女商교장)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慶北支部 현판식

組織强化등에 活力素


◇慶北地區 임원들이 현판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慶北支部(회장=李禹出) 회원 50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16일 大邱시내 남구봉의동1 속사업으로 권장, 基金을들고하여 인 6월중에 열릴 理事會때보고, 또는 참여도가 높은 동문을 우선하여선정, 오는 理事會에 보고하기로 했다。

현판식에 앞서 가진 회원상호간의 우의증진을 위한 조직강화와 저변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同支部는 이번 현판식을계기로 더욱 활발한 모임을 만들수있게 되었다。

현재 동지부는 장학기금으로 1백50만원을 확보해놓고 계속 모금중에있다。

東進會야유회

남이섬서友誼增進

東進會(회장=梁承祐) 친목야유회가 지난15일 회원 12명이 참석한가운데 남이섬에서 열렸다。

이날 회원들은 손뼉맞추기등 각종 게임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참가자에겐 기념타올을 배부했다。

한편 이날모임에서는 장학기금및 同會 운영기금수금등에 관해서도 논의, 최선의 협조를 다할것도 다짐했다。

金營會 창립총회

會長에 許正植동문

선출했다。

매월 세째주 금요일마다 모임을 가진데서 「金營會」라 命名을 정한 同會는친목도모에 우선하며, 문호는 한시 개방하고 있다。이날 참석회원의 명단。

▲尹堤炳 ▲鄭忠熙 ▲成百幸 ▲鄭德淳 ▲李文炯 ▲林瑞圭 ▲李九永 ▲任相淳 ▲李忠烈 ▲金正博 ▲許正植。

東國文學人會定總

會長에 黃命동문선출


◇黃會長

東國文學人會(會長=徐廷柱) 77年度 정기총회가 지난11日오후6時 모교교수세미나실에서 회원50여명이참석한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東國文學賞이 끝난다음 열린 定總에서는 임원개선에이어 장학기금 조성에대한 논의가있었다。새 會長에는 黃命동문(詩人)이 被選되었으며, 신임회장단회의를열어 앞으로의 사업계획및 理事, 분과위원장을選任할計劃으로 있다。

이날 선임된 新任會長團은 다음과같다。

▲顧問=趙宗玄(詩人) 徐廷柱(詩人) 趙演鉉(評論家) 金烱水(詩人)
▲會長=黃命(詩人·徽文高교사)
▲副會長=宋赫(詩人·東大신문사 主幹) 姜敏(詩人·금성출판사 편집국장) 洪起三(評論家·모교專講)
▲常任理事=洪申善(詩人·弘益女高敎師)

東國테니스會 28日, 친선경기

東國테니스會(회장=宋基成) 친선경기가 오는 28日(土) 오후2시 모교교직원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회원들의많은 참석을바란다。

在釜東國會 야유회

通度寺관광등 친목도모

62년 경영학과 입학동기 모임인 金營會발기총회가지난 4월22일(金) 오후6시 30분 시내 체육회관 지하다방에서 열려, 회장에 許正植, 간사에 李九永동문을

◇金泉地區현판광경

金泉地區 創總

會長에 李憲永동문

慶北 金泉地區(金泉·尙州·聞慶·店村·金陵)東友會는 지난 4월17日 10시 동해생명보험(주) 金泉支所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마치고 이어 同 건물에서 「東國大學校同窓會」 현판식을 가졌다。

회원16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李憲永(43·혜전·상주女中교장)동문을 선출했다。同會는매월 세째주 일요일 11시에 月例會를 갖기로했다。

▲회장=李憲永(43·혜전)
▲부회장=朴武(50·전문·지동국교장), 金建熙(51·史·금천고교사)
▲총무=洪翼(63·法·동해생명보험(주) 김천지소)
▲감사=李鎭鎬(43·혜전·상주女中교장), 朴鎭洙(49·전문·경주女商교장)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東青會월례회

相互間의紐帶강화

東青會(회장=趙碩行) 월례모임이 지난13일 오후6시 시내 광화문 태화관에서 열렸다。

金正雄(軍法務官) 회원의 전출위안을 겸한 이날모임은 부부동반, 즐거운시간을 가져 회원상호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했다。

李선숙동문기증 本會도著書 80권

李선숙(62·哲·모교강사)동문이 자신의 저서 『스페어스철학』 80권을 本會에 기증했다。

本會는 이를 실비로 배포, 운영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獎學基金 協贊者 명단

李혜성동문10만원

李憙惺(本名=根培·64·佛·道詵寺住持)동문이 10만원을 署名 협찬했다。

東英會서10만원

東英會(회장=朴榮基)에서는 장학기금10만원을 모금, 지난6월 本會로납부했다。

個人別납부액

▲金智福(48·전문·光山林高校長)=2만원
▲金宗勉(69·行院·한국반공연맹사무총장)=5만원。

全南支部26만여원

全南지부(회장 鄭根模)는장학기금 26만7천원을모아 洪淳鐸동문便에 本會로 납부시켰다。

▲정근모(49·전문·전남여고교장)=5만원
▲민준식(51·經·전남대총장)=5만원
▲정의섭(50·국·전남대교육대학원장)=3만원
▲전병곤(전남교육위원회 학무국장)=1만원
▲박종섭=〃
▲이금래(48·文·동신여고교장)=〃
▲구희두(장흥용산중학교교감)=1만원
▲박현남(노동청광주지사무소장)=〃
▲홍순탁(51·국·전남대문리대교수)=〃
▲이종출(53·국·조선대교수)=〃
▲한상인=〃
▲최태중(59·佛·정광고교교장)=〃
▲최성호(52·국·광주교대교수)=〃
▲최용복(56·국·광주사범학교교수)=〃
▲송동휴(52·정·여천군부군수)=5천원
▲안진오(61·大院·전남대문리대교수)=〃
▲천지영(담양한재중교장)=〃
▲이재열(52·경·광주시오치동5-18)=〃
▲김진표(49·전문·광주여상교장)=1천원
▲김순중(53·경·광주여상고)=〃
▲채종환(광주 동성여중)=〃
▲최한수(52·法·광주동성여중)=〃
▲설정환(60·경·광주동성여중)=〃
▲정재식(60·영·광주동성중)=〃
▲박종민(동성중)=〃

人事 辯護士開業

저는이번에 地法部長判事職을 辭任하고 (1977. 5. 2) 아래 場所에서辯護士業務를 開始하였음을참가아뢰옵니다。

지난19年間의 軍法務官·서울民刑事地法·서울高法·大法院裁判研究員判事와仁川·서울刑事·大田의 地法部長判事로在職하는 동안에 베풀어주신 厚意에對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熱과 誠을 다하여 民事·刑事·行政訴訟等諸般辯護士業務에 精進하고자 하오니 繼續變함없이 指導鞭撻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于先 紙面으로 人事드립니다。

1977年 5月 日

開業場所：서울·中區西小門洞50의12號 三鈴빌딩 111·112號室 (韓一病院옆)

電 話：事務室㉒2266番自宅㉜2043番

拜謹 黃石淵 士護辯

한식 재래 기와

일반건설공사, 문화재공사
사찰신축및, 보수공사

신용과기술의상징
昌元窯業株式會社
서울·城東區 城內洞 218
48 3041·3306

崔載九同窓會長 祝辭

존경하는 母校 李瑄根총장님과 尹月下이사장님, 高僧大德스님여러분, 前總長이신 金東益박사님, 그리고 教職員및 在學生, 同門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母校 東國大學校가 開校 71周年을맞는 뜻깊고 慶事스러운 날입니다.

躍動하는 5月의 新綠처럼, 學問의 熱情을 불태우는 젊은 후배들의 가슴에는 生氣발랄한 패기가넘쳐나며, 또한 새로운 跳躍의 발돋음을하는 캠퍼스를 대하니 자못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71年前인 1906年, 韓國佛教宗團의 先覺者들이慈悲員現과 教育救國의 旗幟를 높이들고 三寶의 淨財를 모아 設立한 우리 母校는 未明의 아침을 여는 叡智의 大學, 民族의 대학으로서出發했었읍니다.

일찌기 이나라 私學의 名門으로 學風을 드날렸던 우리 모교는 나라를 잃어버린 民族受難속에서도七顚八起하며 抗日闘爭과 民族中興을 위하여 온갖 苦難을 겪으면서 大學의 사명을 다하여왔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3萬餘同門들은 오로지 모교의 발전이 우리同門의 名譽와 긍지를 드높힌다는 嚴然한 현실을 直視하면서 母校 발전을 위하여獻身的으로 나설 것을 굳게 다짐해 왔읍니다. 周知하는시바와같이 우리 민족은 來日의 國家社會를 여는 研究와 精進으로 스스로의 책임을완수함으로써 大學人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知的·人格的인 自己完成 목표를 성취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東國人에게 負荷된사명을 다함으로써 先輩들이 이룩한 빛高한 전통위에 더욱 빛나는 새傳統을 창조하는 슬기로운 後輩들이되어주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東國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리를 탕스러운 傳統과 業績을 가지고있고, 새時代의 격변하는 추세에 對處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速度를 더욱더 加速化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大學은 그 어느 時代보다도 競爭力의 강화를 요구하고있읍니다. 그것은 드높은 眞理探究의 길에서, 또한 모든 경쟁의 關門에서 언제나 榮光을 차지할 수있는 力量을 기름으로써 다져진다고 믿읍니다.

親愛하는 在學生 아우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大學의 永遠한 주인인 여러同門들이 自發的으로 모교를위해 무엇을할수있는가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밀어줄때 母校는 새롭게 成長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는 개교70주년기념 奬學事業을벌여, 모교를아끼는 뜨거운 同門愛에 힘입어 골마무리될 단계에 와있읍니다.

이모두가 母校 東國을아끼는 우리同門들의 한결같은 意志로서 언제고 東國은 영원히 발돋움하는 모교 東國大學校는 모든 分野에자랑스러운 傳統과 業績을 가지고있고, 새時代의 격변하는 추세에 對處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速度를 더욱더 加速化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大學은 그 어느 時代보다도 競爭力의 강화를 요구하고있읍니다. 그것은 드높은 眞理探究의 길에서, 또한 모든 경쟁의 關門에서 언제나 榮光을 차지할 수있는 力量을 기름으로써 다져진다고 믿읍니다.

親愛하는 在學生 아우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大學의 永遠한 주인인 여러同門들이 自發的으로 모교를위해 무엇을할수있는가를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밀어줄때 母校는 새롭게 成長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는 개교70주년기념 奬學事業을벌여, 모교를아끼는 뜨거운 同門愛에 힘입어 골마무리될 단계에 와있읍니다.

이모두가 母校 東國을아끼는 우리同門들의 한결같은 意志로서 언제고 東國은 영원히 발돋움하는 모교 東國大學校는 모든 分野에자랑스러운 傳統과 業績을 가지고있고, 새時代의 격변하는 추세에 對處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速度를 더욱더 加速化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大學은 그 어느 時代보다도 競爭力의 강화를 요구하고있읍니다. 그것은 드높은 眞理探究의 길에서, 또한 모든 경쟁의 關門에서 언제나 榮光을 차지할 수있는 力量을 기름으로써 다져진다고 믿읍니다.

親愛하는 在學生 아우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



◇崔載九회장



◇李瑄根총장

리선근母校총장 式辭

친애하는 東國人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尹月下이사장님과 佛教宗團의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崔載九 동창회장을 비롯한 내외귀빈을 모신 자리에서 나는 同僚教授·職員, 學生諸君과더불어 우리 東國大學校 開校71주년기념식을 갖게된 것을 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회고하건대 우리大學은 1906년 開校이후 日帝암흑기의 民族的인 수난과 현난한 격동의아픔을 民族과 함께 겪으면서 시교 있읍니다。

나는 먼저 全東國人과 함께大學史上의 이러한 역경과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굳건하게 大學의自由를 수호하고 심오한 學問의전당을 成長시켜오신 역대 理事長님과 역대 總·學長님을 비롯한 教授·學生등 全東國人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東大71년사의 값진 교훈을 바탕으로 원대한 미래를전망하면서 안으로는 大學의 질적성장에 활력을 원활하게 제공할수있는 전진적 의지를 강화해야하겠읍니다。大學의 존립가치는教育과 연구 봉사등 大學의 3대기능을 나날이 새롭게 심화 천착하여 진리의 영역을 개척하는데 있읍니다。우리 東國大學校의 건학이념인 佛教의 自我完成과衆生濟度는 大學의 사명과 기능을 포용하는 가르침입니다。

大學人의 自我完成은 진리에근거한 수행을 전제로 教育과연구에 중점을 두어 격변하는 새시대를 선도하고 슬기롭게 대응할 수있는 自主 自立的인 역량과 냉철한 이성, 그리고 불퇴전의 추진력을 함양하는 데에 있읍니다。

진리탐구의 길은 일찌기 부처님이 王宮의 모든 榮華를 뿌리치고 가출하셔서 苦行林그늘에서 風雨寒雪과 飢渴을이기시면서 6년동안 苦行하시다가 豁然大悟했던 가르침으로 비유할 수가있다고 생각합니다。부처님이 6년동안 고행하시던 그위대한 인내와 극기와 정진으로 교육과연구에임할때 우리에겐분명히 위대한 大學史와 民族史의 전진이 기약될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건학이념은 자아완성과 衆生제도의 실천적인 智慧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건학이념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것이지만 大學과 大學人은 국가를떠나서 존재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護國佛教에 입각한 自主·自立·自衛의 정신으로 대학인의 大道를 힘차게걸어 국가사회건설에 활력을 배가하고 총력안보를 이룩합시다。오늘 뜻깊은 開校紀念日에 勤續·勤務표창을받으신 교수·직원여러분께 충심으로 치사를 보내면서 본교의 앞날에 부처님의 加護가 있기를 비는 바입니다。

母校 開校 71周年 紀念辭

서 연제나 榮光을 차지할 수있는 力量을 기름으로써 다져진다고 믿읍니다。

親愛하는 在學生 아우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

總和團結로 競爭力强化를 學術·文化·體育등의 伸張에 精進

줄기찬 學風과 護國의 저력새롭게 大學史의 偉大한 前進기약

東國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리를 탕스러운 傳統과 業績을 가지고있고, 새時代의 격변하는 추세에 對處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速度를 더욱더 加速化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의 大學은 그 어느 時代보다도 競爭力의 강화를 요구하고있읍니다。그것은 드높은 眞理探究의 길에서, 또한 모든 경쟁의 關門에서 언제나 榮光을 차지할 수있는 力量을 기름으로써 다져진다고 믿읍니다。

親愛하는 在學生 아우 여러분!

大學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활기찬 勉學風土와, 「하면된다」는 自信感과, 앞날을 展望하면서 자기자신을 채찍질하는 왕성한 推進力의 결과라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大學의 主人들인 아우님 여러분

母校 開校 71周年 紀念辭

東大와 나의 總長時節

鄭斗石박사 略歷

○ ▲咸南利原出身 ▲31년 中央佛專卒 ▲41年 日本大宗教科卒 ▲43年 日本大史學科卒 ▲50年 東大교수·同교무처장 ▲54년 東大學生處長 ▲55年~61年 淑明女大文理大學長·同教務處長 ▲61年10月東國大學校총장 ▲63年 日本大서 명예문학박사학위수령 ▲63年7月 東大총장사임 ▲전공=東洋史



◇총장 在任時의 鄭박사

質的向上다짐코就任

〈3〉 鄭斗石

〈제3대總長·名譽文博〉

나의 모교인 東大에와서내가할 일을따음과같이취임사에서밝혔다。

◇

첫째로 우리는 건전한 學風을 진작시켜야하겠읍니다。50여년의역사를 가진本校는 이미 훌륭한학풍을가지고있읍니다만、加一層분발하여 타의 모범이되는 眞理의전당을 이룩하여야할줄로믿읍니다。그러나 學風이란 美風良俗과마찬가지로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것은아닙니다。오랜 역사를통하여좋은 생활、좋은 습관의 축적에서이루어지는것임으로 教授와 학생들이 協力해서하루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유의하고 노력해야할것입니다。

◇

둘째로는 평화로운 학원、자유로운 학원을이룩해야되겠읍니다。한 가정이나 團體가 平和롭지못하면 거기에 아무것도 成就되지않는것과 같이 眞理의 전당인學園도 평화롭고 자유로와야겠읍니다。평화와 자유가 없고서는 眞理를 탐구할수도없고、또 널리펼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感情이나利害에이끌림이없이 오직 학원과教育을위한다는 一念下에서 熱과誠을모아 노력할것입니다。目的이같고 行動이같으면 거기에 아무런마찰도없을것이며 훌륭한 成果도얻을수있읍니다。

이것은 革命下의 教育界의 一翼을 담당한 우리들로서는 절대긴요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교육의 質的向上을꾀해야한다는것입니다。〈以下略〉

◇

以上은 내가 1961년 10월 10일 東國大學校 제3대총장에취임하면서 밝힌 취임포부의 일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에게 負荷된사명은 學生들의 質을높혀 최고의大學으로 끌어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총장으로 부임한 61年은國家考試가실시되었던 첫해로 우리의 성적은 말이아닌 상태였다。東大는 나에게있어서는 총장以前에 모교이고、모교의 實力形便이어느정도인가를 알았을때 내가강조한 質的向上은 더욱 나의 임무를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우선교수진을강화하기위해 「전문분야에 전문강의」라는 원칙아래지기 본전공이아닌 부전공과목으로 강의를맡고있는교수를 일단정리하기도했다。당시迎入된교수로는 韓泰淵、黃山德、張庚鎬、申泰煥、梁柱東등 著名한교수들이였다。

사실은 나의 취임이전에東大에 在職中인 유명교수들이 白性郁총장 배척으로 퇴진상태여서 다시 迎入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교수임용에있어서 정실을배제하고 논문제출로 철저히심사한후 결정했다。

다음으로 質이저하되는 원인으로는 일부학생들이 교수와 공부를 잘하는학생을위협、어떻게해서든지 자동졸업하는 풍조가있었던 점이다。예를들어 시험지 5줄에 85점을주는경우를보고 놀라지않을수없었다。

따라서 학생감독은 교수가、교수감독은 총장이、총장감독은 학생이 담당하는 릴레이식편법을부상했다。

그밖에 文教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ELI학원에서 英語강사를 초빙、과외지도로서 실력향상을 꾀했다。이와같은 움직임에재단理事會와 同窓會、在學生들은적극적으로 환영하고지지해주었다。

교 생각했다。

家考試가실시되었던 첫해로 우리의 성적은 말이아닌 상태였다。東大는 나에게있어서는 총장以前에 모교이고、모교의 實力形便이어느정도인가를 알았을때 내가강조한 質的向上은 더욱 나의 임무를 가중시켰다。

그리하여 우선교수진을강화하기위해 「전문분야에 전문강의」라는 원칙아래지기 본전공이아닌 부전공과목으로 강의를맡고있는교수를 일단정리하기도했다。당시迎入된교수로는 韓泰淵、黃山德、張庚鎬、申泰煥、梁柱東등 著名한교수들이였다。

사실은 나의 취임이전에東大에 在職中인 유명교수들이 白性郁총장 배척으로 퇴진상태여서 다시 迎入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또한 교수임용에있어서 정실을배제하고 논문제출로 철저히심사한후 결정했다。

다음으로 質이저하되는 원인으로는 일부학생들이 교수와 공부를 잘하는학생을위협、어떻게해서든지 자동졸업하는 풍조가있었던 점이다。예를들어 시험지 5줄에 85점을주는경우를보고 놀라지않을수없었다。

따라서 학생감독은 교수가、교수감독은 총장이、총장감독은 학생이 담당하는 릴레이식편법을부상했다。

그밖에 文教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ELI학원에서 英語강사를 초빙、과외지도로서 실력향상을 꾀했다。이와같은 움직임에재단理事會와 同窓會、在學生들은적극적으로 환영하고지지해주었다。

色모立定再의風學한綿綿

法·經分離 經商大學을 신설



◇鄭총은 學生간부들과 간담회를열어 師弟일체감으로 東國발전을꾀했다。

公務員教育院着工 물의빚어

月1回、學生들과 간담회가져

5個單大로 늘어나

在學生및 동문들의 바램이였던 經商大學의 인가를 받은것은 62년말이였다。

法政大學으로부터 經濟科·商學科·經營學科등 經商系학과를 분리하여 經商大學의 신설을 보게된 것이다。이밖에 文理大에 統計學科와 법정대학에 국내유일의 警察行政學科의 신설도 보게되었다。또한 物理·數學양과를 부활하고 政治科는 政治外交學科로개명하였다。

이로써 東大는 종전의 4개단과대학에서 佛·文·法·經·農5개단과대학으로 늘어났으며、이에따르는 諸般施設을 정비하여 國家的으로 요청되는 大學교육의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주력했다。

佛教·統計연구소설치

또한 연구분위기를 조장하기위해 우선각학과 主任教授室을 설치하였다。

또 佛教文化硏修를 통하여 民族文化發展에 기여하고 나아가세계 불교학계와의 제휴를 도모키위해 불교문화연구소를설치、초대 소장에 趙明基박사를 임명했다。

公務員教育院착공混亂

그러나 나의 재임기간은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학교체육의 不振狀態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고조됨에따라 본교 운동장 예정택지에 중앙공무원 교육원건물이 착공된다는 청천벽력같은정보가 시책이라고 말했다。東大에서는 도서관 東쪽에정지(國有地)를 수차에걸쳐 사용허가신청했으나 공원지라는 명목으로거절당해왔는데 돌연、이를 해제코 中央公務員교육원을 착공하자 學內는 혼란속에 빠져들었다。

학생회와 각써클대표들은 진정서를 채택코 관계요로에 간곡히 호소하긴했으나 나의 생각으론이미 결정된 정부시책이었으므로불가항력이라고 믿었다。때문에 나는 학생제군은 이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와 동요없이 오직 학업에 정진하길 당부했다。

專門분야에 專門講義 강조

佛教·統計硏究所등도 설치

모다 總和된 大學으로

지금까지도 나의소망은 교육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신흥대학의 亂立狀態에 휘말려서는 안된다는 점이다。이를위해 소신대로 밀고나갈수있는 1인체제로 적극 밀어주고 전체 東國人의 총화를對內外에 과시해야한다。재단은 재정적인 후원을통해 학원을 번영시키고 宗團은 宗立大學의 발전을위해 화합과 슬기를 보여야한다。과거처럼 학생동독금을 財團서 사용하고 인사관계에까지 재단의 입김에서 이루어지는따위의 부조리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東國은 영원히빛을잃고 말것이다。

유능한 선배가 실력을 기울여 후배를 가르치는、다시말해 主人이있고 주체성이 있는 大學건설에 全東國人의 의지가 모아져야 할것이다。

韓國主唱해 을設建園學운로由自과上向的質의育教

안과처방조제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광화문쪽30m 동문의집·(72)0524

銀行用·事務用·家庭用
FIRE RESISTIVE SAFE
Y 榮一金庫
日本熊平(구마히라)技術導入
서울·을지4가(4가로타리) ☎(27)6407·6408

祝 東國大學校開校71周年 慶

總理室
행정조정실 조정관 이연택
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연구관 하영섭
행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송경육
〃 최인규

內務部
감사관 유기천

遞信部
감사관 최학선

交通部
수송조정실장 문명린

第一無任所長官室
정책조정실장 조병봉

總務處
인사국장 정관용
민원상담실장 송천석

調達廳
물자조정국장 성영

兵務廳
차장 양해경
징모국장 김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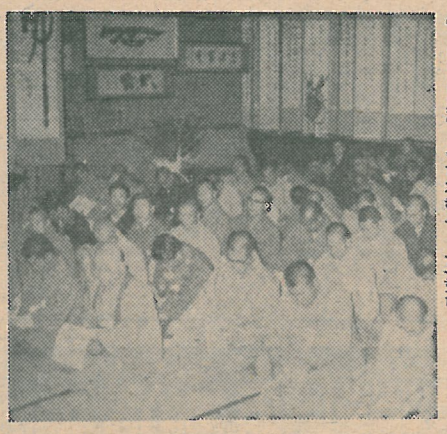
治安本部
제3부장 김병리
외사과장 유래형
총경 김종일
〃 이종국
〃 중석

서울市警察局
정보과장 이영창
외사과장 김종국
용산서장 길육

宗國과 東國發展에 기여

宗費生 모임 釋林東友會 창립

○ 宗費生으로 東大를 卒業한 동문 1백50명이 모여 釋林東友會 ○
○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柳月誕(65·佛) 스님을 선출했다. 지난 ○
○ 5일 오후2시 총무원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는 그동안 산발적 ○
○ 으로 활동해온 종비생들의 모임을 좀더 체계적으로 묶어 종단과 ○
○ 모교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경광林東友會 창립총회

會長에 柳月誕동문

이날 本會 崔載九회장은 『한국宗國의 엘리트로서護 한편, 尹天泳사무국장은 本國佛教精神을 받들어 母校 會사업현황과 협조방안등을 와 宗國中興에 이바지해주 보고했다.

길 기대한다』고 격려하는

61年 政·經친선축구

3대2로 政治科팀승리

개교71주년기념 61년졸업 버이날 이기도 한 이날은 정치과(동기회장=李哲洙)와 4주째 휴일마다 호리던 세한 정치과팀에게 부불을 經濟科 (동기회장=崔允植) 대항 친선축구대회가 지난 날씨가 이날따라 말끔히개 꿀었다。

8일 오후2시 모교 인 가운데, 선수들을 비롯 장에서 열려 정치과팀이3 화기애애하게하루를즐겼다。 대2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경제과팀은 전원유 개교71주년기념일이자 니폼을 착용, 一絲不亂하게

政治科3 (1—0 / 2—2) 2 經濟科

이러한 친선축구경기는本 會사상 공식경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선출된 임원진은다 음과 같다。

▲회장=유월탄(65·佛)
▲부회장=강양우 성암도 정태경
▲이사=부진장 이혜성 강양우 정태경 임봉준 이인수 방법융 홍성진 이선과 최법혜 김법조 이명우 정수현 김법현 이재현 문동림 김현보 김만휴 김명정 한상인 유월탄
▲사무처장=임봉준
▲총무부장=조길조, 同차장=이태원
▲재무부장=김법현, 同차장=김현보
▲조직부장=박도성, 同차장=서수인
▲문화부장=석지현, 同차장=김인수
▲섭외부장=정수현, 同차장=유지연

七金會월례회

李種憲회원宅서

七金會 (회장=姜錫英·70·經營·서울刑事地法) 月例會가 지난달30일엔 姜회장宅에서 열린데 이어, 5月 월례회는 李種憲(69·林·한국BP聯合商社대표) 간사댁에서 28일열릴예정이다。 七金會는 62年 林學科入學同期中心모임체로 金요일에 창립한데서 命名된 명칭이며 현재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회원집을순회하며 월례회를열고있다。

▲회장=姜錫英
▲부회장=鄭善模(66·林·부산市警 海警隊長)
▲감사=李種憲
▲회원명단=鄭幸一 趙啓文 趙炳熙 林升圭 鄭允洙 南炳華。

行政大學院 定總

회장에 禹國一씨 선출

모교 行政大學院 (원장=許申國柱박사) 에서는 77학년도 행정대학원정기총회를지난 4월28일(木) 오후8시본대학원세미나A실에서가졌다。 이번총회에서 토의된 중요내용은 지난학기 동안의 經過報告및 決算報告 77학년도 회장단선출등이었으며 사업계획 및 기타 임원선출은 신임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名譽會長=卞仁花 (財務)
▲會長=禹國一 (防衛産業)
▲副會長=孟殷在 (教育行政專攻)
▲總務=申忠均 (人事行政)

經營大學院사무실 開所

을지6가 을호빌딩 "활발한모임 求心點되게"

經營大學院東友會 (회장=金完基) 사무실 개소식이회원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土) 오후3시 을지로6가에 있는 을호빌딩306호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 본회에서는 崔載九회장과 尹天泳사무국장이, 母校에서는 許衛경영대학원장, 錢昌源 經商大學長, 趙熙榮경영대학원學監, 그리고 文富植의원등많은 내외귀빈들이 참석, 격려했다。

현판식을 가진다음 開所테프를 끊은 金完基회장은 『그동안 동문들이모여 의견을 교환할 장소가 없어 활동에 난점이 많았으나 오늘을 계기로 여러 회원들이 합심, 발전에 박차를가하자』고 말했다。

本會 崔載九회장은 또한 『사무실 마련을 계기로알찬 모임을 이끌어주길』 당부했다。



◇61年政治科·經濟科는 친선축구경기를 마치고나서 우정을 다지는 기념촬영을 했다。

金遺腹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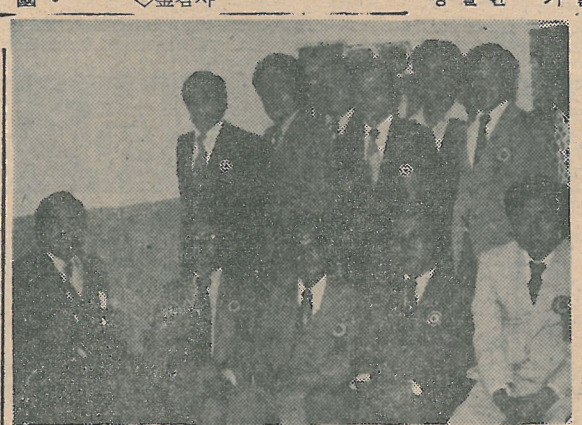
東國學院 監事로



◇金감사

本會부회장 金遺腹(51·政) 동문이 學校法人 東國學院감사로 선임되었다。

本會가 파견한 金東正감사의 임기만료로 교체선임된 金遺腹감사는 초대高大학훈단장, 초대 서울시병무청장, 제30사단장등을 역임했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장, 韓·印尼協會회장직등을 맡고있다。



◇經營大學院東友會 사무실 개소식을 마치고 나서 (앞줄 오른쪽 두번째가 本會崔會長, 맨왼편이 金完基회장)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東國의 傳統 〈8〉

宗教는 신앙의 歷史로健在하여야한다。 그러나 宗教가 信仰은傳承되고 그 신앙에 대한 教義的解析學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宗教는 知性人으로부터 거리감을 갖게할 것이다

사실 韓國佛教의 歷史는 장구한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를 회고하여살펴보면 佛教는 女性信者와 僧侶 또한 불교학을 전공하는 少數人에게만 향유될수있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었다。

이렇게 제한된 영역의 佛教가 60년대를 접어들면서 韓國의 一般人으로부터 각광을받게되었다。 그 이유를 세분할수 없지만 知性人이 佛教에 눈을돌린것은神文化創造에 커다란 변혁이 아닐수 없다。

⑧

佛教學

이러한 시대적조짐에발맞추어 佛教學硏究도 활발하게전개되기 시작하였다。 老益壯을 자랑하듯 꾸준하게 정진하면서 또한 그모습전체에서 學問의 진지성을 느끼게하는 金東華님은 佛教學報에 불교의 唯心思想의 發達과 展開를 발표하였다。 이 唯心思想의 發達은 佛陀가 悟覺한 마음을 體系的으로 연구한것만이 아니라 唯心이 原始佛教에서부터 大乘佛教에이르기까지展開된것을時代別로 硏究한 大野心의 大術이라 할수있다。 나는金東華님의 연구업적이 인쇄화된것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趙明基님의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 東國文化社에서 나오고 불교사상집인世俗의길 열반의길 (徐景洙)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煐泰) 가 進修堂에서 간행되어 佛教史연구에 추출이 되였고 더우기 圓音閣에서 발간된 원효의기신론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元曉思想 (李箕永) 은 韓國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老師는 佛教教理發達史 原始佛教思想論 唯識學概論 俱舍學 등이 모두 프린트本으로나왔다。 教材用으로 만든것이지만 이것을 구해보지 못하여 혈안이된 學生 信徒들을 뒤돌이켜 볼때 佛教界의 出版業이 꽉하나있어야한다는 열원을세운것도그때의일들이였다。 佛教關係論文을 활자화할수 있는것은 東國大 論文集과 佛教學報가 모두였다。 그리하여 그때의 佛教認識論理學등이 커다란 연구결과였다。

金煐泰님의 三國유사를 중심하여 新羅佛教의 大衆性을 發現하기위하여 일관된 연구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수없다。 불교가 민중을 저버리지 않고 대중과 더불어 佛教의 진리를 펴나가는 것이 불교의 使命이라고 할때 이러한 연구업적이 인쇄화된것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趙明基님의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 東國文化社에서 나오고 불교사상집인世俗의길 열반의길 (徐景洙)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煐泰) 가 進修堂에서 간행되어 佛教史연구에 추출이 되였고 더우기 圓音閣에서 발간된 원효의기신론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元曉思想 (李箕永) 은 韓國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老師는 佛教教理發達史 原始佛教思想論 唯識學概論 俱舍學 등이 모두 프린트本으로나왔다。 教材用으로 만든것이지만 이것을 구해보지 못하여 혈안이된 學生 信徒들을 뒤돌이켜 볼때 佛教界의 出版業이 꽉하나있어야한다는 열원을세운것도그때의일들이였다。 佛教關係論文을 활자화할수 있는것은 東國大 論文集과 佛教學報가 모두였다。 그리하여 그때의 佛教認識論理學등이 커다란 연구결과였다。

金煐泰님의 三國유사를 중심하여 新羅佛教의 大衆性을 發現하기위하여 일관된 연구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수없다。 불교가 민중을 저버리지 않고 대중과 더불어 佛教의 진리를 펴나가는 것이 불교의 使命이라고 할때 이러한 연구업적이 인쇄화된것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趙明基님의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 東國文化社에서 나오고 불교사상집인世俗의길 열반의길 (徐景洙)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煐泰) 가 進修堂에서 간행되어 佛教史연구에 추출이 되였고 더우기 圓音閣에서 발간된 원효의기신론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元曉思想 (李箕永) 은 韓國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著術形式의 論文 속출

大衆意識의 佛教學硏究 본격화

元圭님의 淨土往生의 연구, 一念三千說, 金煐泰님의 彌勒仙花巧眞興王의 信佛思想, 新羅佛教大衆化僧侶郎徒考 洪庭植님의 法華經結集者의 연구, 黃壽永님의 印度石窟寺院, 檢劫寺五十三佛, 李載昌님의 慶州佛像初의 對日關係와 高麗大藏經 李箕永님의 佛身에 관한 연구 元曉의 菩薩戒觀 元曉繹님의 佛教認識論理學등이 커다란 연구결과였다。

金煐泰님의 三國유사를 중심하여 新羅佛教의 大衆性을 發現하기위하여 일관된 연구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수없다。 불교가 민중을 저버리지 않고 대중과 더불어 佛教의 진리를 펴나가는 것이 불교의 使命이라고 할때 이러한 연구업적이 인쇄화된것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趙明基님의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 東國文化社에서 나오고 불교사상집인世俗의길 열반의길 (徐景洙)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煐泰) 가 進修堂에서 간행되어 佛教史연구에 추출이 되였고 더우기 圓音閣에서 발간된 원효의기신론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元曉思想 (李箕永) 은 韓國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老師는 佛教教理發達史 原始佛教思想論 唯識學概論 俱舍學 등이 모두 프린트本으로나왔다。 教材用으로 만든것이지만 이것을 구해보지 못하여 혈안이된 學生 信徒들을 뒤돌이켜 볼때 佛教界의 出版業이 꽉하나있어야한다는 열원을세운것도그때의일들이였다。 佛教關係論文을 활자화할수 있는것은 東國大 論文集과 佛教學報가 모두였다。 그리하여 그때의 佛教認識論理學등이 커다란 연구결과였다。

金煐泰님의 三國유사를 중심하여 新羅佛教의 大衆性을 發現하기위하여 일관된 연구는 한국불교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수없다。 불교가 민중을 저버리지 않고 대중과 더불어 佛教의 진리를 펴나가는 것이 불교의 使命이라고 할때 이러한 연구업적이 인쇄화된것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趙明基님의 高麗大覺國師와 天台思想이 東國文化社에서 나오고 불교사상집인世俗의길 열반의길 (徐景洙) 韓國佛教史 (禹貞相、金煐泰) 가 進修堂에서 간행되어 佛教史연구에 추출이 되였고 더우기 圓音閣에서 발간된 원효의기신론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元曉思想 (李箕永) 은 韓國불교를 일으키게 되었다。

〈睦楨培敎授 제공〉

선배들과記念植樹

새마을연수원서

제38기 새마을연수교육을 마친 함도호국단간부 이광호, 장동호, 신상수군등은지난4월15일 大田중앙공무원교육원 본관앞에서 申允灼 (연수원교수) 박영환 (체신부과장) 등동문과 함께 향나무 1株를 기념식수했다。

東綠會친선경기

東綠會 (회장=鄭在哲) 친선 골프경기가 지난15일오전10시 한양컨트리 클럽에서 열려, 회원상호간의 友誼를 돈독히했다。

經營大學院환영회

養老院에위문품도

모교經營大學院 (원장=許相一·人事勞使) 에서는 지난4월8일오후7시유람호텔에서신입생환영회를가졌다。 한편 지난4월24일 同대학원총학생회제9기생 (회장=沈衛博산) 총학생회 (회장=李起彬) 은 도봉구에있는市立양로원을 예방, 준비한위문품을 기증하고 위로, 다과회를 가졌다。

〈記事넘쳐 本會來訪者명단 쉽니다〉

알 림

東友會報는 三萬同門 여러분의 相互交流를위한 紙上架橋입니다。

①東友會報에 실릴 原稿를 수시 接受합니다。 (詩·隨筆·콩트·論壇·提言·기타)
②同門들의 各種 身上變動事項을 提報바랍니다。 (昇進·轉補·就業·結婚·訃音·移轉·開業·出入國·기타)
③東友會報는 同門들의 적극적인 協贊으로 成長하고있읍니다。
◇年會費는 2천원입니다。 (個人別납부 또는 地域·職場·學科·期別등 團體납부환영)
◇廣告를 게재하실분은 ☎8568로 문의바랍니다。
④東國人名錄 (同窓會員명부4집) 을 계속 배부중이오니 속히 수령바랍니다。
⑤주위의 同門들께상호 알리어 東友會報의 빠짐없는 구독을 바랍니다。 (출업년도·學科·주소·직장 전화번호·이름등을 明記하여 事務局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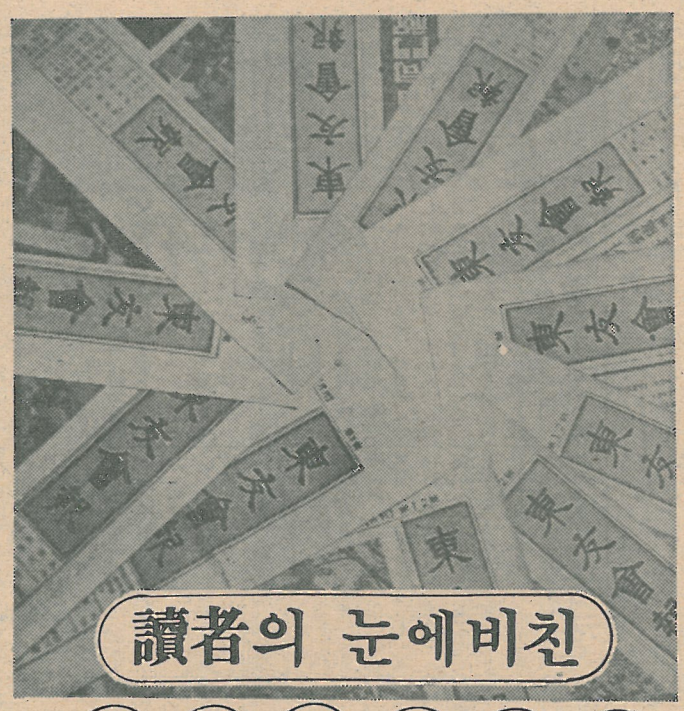
1977년 5월

☎8568 (直)☎8131~9 (交)297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중구필동3가26

나무와 더불어 자라나는 국민의기업
鮮昌産業株式會社
●선·퍼니싱 / 건창합판제조원

販賣 一齊全國; 現代는 言語活動의 時代이다
스피치 大百科事典
韓國言語文化院長 金良順 編著
이 책이야말로 政治人·法曹人·言論人·藝術人·經濟人·宗教人·軍人·各級公務員·各級 集團의리더·教師·그리고 最高學生으로부터 家庭主婦에 이르기까지 必携·必讀書 이다!
初版 內國
圖4×6倍版/最高檢查事件製 高級金箔/總1,536面/名演士商標 500型/原因 케이스入 定價 18,000원 6個月 割賦販賣
언어문화社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4街116
☎(26)1016 (29)1016



讀者의 눈에비친 東友會報 1주년

3만同門의 눈이요, 입이요, 귀가 되어온 會員紙 東友會報가 이번5월호(지령13호)로서 창간1주년을 맞이했다。同門상호간의 友誼增進을위한 紙上架橋가 되어온 東友會報의 1년。월간이라는 제약때문에 紙齡이라야 13호에 이를뿐이다。그러나 東友會報를 통한 同門動靜과 조직강화、奬學事業 전개등은 커다란 수확이 아닐수 없다。비록 작차를 탄 느낌이긴해도 열의만은 대단했다。아픈 呱呱를 울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얼룩졌으며、또 얼마나 망설였던가? 오늘 東友會報는 숨어 있는 同門들을 발굴하고 동문상호간의 連繫역할과 東國발전을 위한 「代辯者」요、「洞察者」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을 自負한다。東友會報는 東國人의 백박이다。빛나는 校史에의 「未來의 理念」을 제시하는 豫見者이고자 한다。어리고 빈약한 오늘의 현실이지만、따뜻한 3만 동문의 품속에서 曲筆보다는 直筆을、分裂보다는 和合을、退嬰보다는 前進志로서、명실공히 知性擴散매체가 될것을 다짐한다。

〈편집자註〉

東友會報의 어제와 오늘

同門消息은 지난72년부터 東大新聞에 줄은 紙面을 빌어실기시작했다。

東友會報는 지난해 5月8日字로 창간되었다。

이후 東友會報의 얼굴인 1년의 會報를 살펴보면모교소식、정기 총회、세계불교학술회의、各單位會長·總務(幹事)연석회의、학술강연회、送年會、學位수여식、제8회 東國人登山大會의 순간들이생생하게 기록되었다。

12호까지 고정란難자를 살펴보면 1면의 詩는徐廷柱 申庚林 朴堤千 具慶書 金魚水 文貞姬、2면의 東友提言은 李丙疇 文泰植 黃明秀 金遺腹 金聖涉김성배李相直順이다。

3면의 同門探訪은 鄭在哲 柳根昌 朴恩會 柳周馨 韓沃申 李西翁 趙演鈺이、4면 총장시절은 金東益 金東華편을 게재했다。

다음에 5면의 「학창을 그린다」(화답)는 中央佛專10回、惠化專門 45年入學同期、54年卒業同期、61年卒業同期가、그리고 6·7면의 支部、支會소개는 化學科、同舟會、自動車保險、東友會、韓國電力、牙山郡、61年經濟科、太平洋化學 法五會가각각 소개되었다。夫婦同門席은李喆鎬·金在成부부、黃성기·金貞愛부부、蔡洙永·吳明根부부、姜敏·李菊子부부가 소개되었으며 보람있는 化學과 民族文化의 將來」라는 타이틀의 전국10개주요도시 순회 학술강연회 강연요지가、9·10호에선 奬學基金납부 현황과 送年會 스켓치가、11호는故 梁柱東박사의 學的 편모가 다루어졌다。또한 金善興의 논단이 唯一하게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年末 임시총회결과 무엇보다도 人力不足、財政難、取材源빈곤등 문당면한 과제점이었다。

2면의 심혈을 기울여 대의 동문등정탐은 최고、찾고、확인하고、사진 등을 회수하여야하는 복잡성을 부릅쓰고、東國을 빛내준 동문이면 누구나 동원되었다。

이러한 會報제작에 있어서 보다도 人力이 문제였다。

3면의 일반기사는 本會의 운영、조직、활동 등의 諸般事를 빠짐없이 기록、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할바를 지켜왔다。

그러나 지면부족으로 工場에서 문선까지 되었다가 빠져나가는 기사가不知幾數였고、誤字、탈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에도불구하고 미쏘는 함상 발견되어 다음 신문을 채적질하곤 했다。

바라건대 東友會報는 東國人의 대변지、소개지、교류지、친목지로서 동문상호간의 유대강화와 奬學事業 등 모교발전을 위한 「代辯者」、「洞察者」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것이다。



값진 友情의 架橋

崔 致 根

사람은 情에 산다。

情가운데도 友情은 友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여 훈훈한 社會를 이룩하는것이다。

우리 3萬同窓生들은모두가「東國人」으로서의긍지와 自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모르고 지내기 때문에 失禮와不便을 느껴야할때도 있을수있다。

우리 三萬東國人들이友誼를 더욱두터히하고 상호협조할때 國家와 社會 개인에 미치는 힘은 얼마나 커지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때 東國人의 友誼의 架橋役割을 다하는데 最大媒體인「東友會報」의 사명은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이제 三萬東國人들의大小길흉동태를 날날이 取材 報道하고 유대를 공고하게한「東友會報」한돐을맞아 그 功을 높이致賀하여 마지않는 所以도 여기 있는것이다。

우리 母校 東國大學校의 부궁한영광과 아울러「東友會報」의 더욱힘찬 發展을 衷心에서 빈다。

〈52年·國文·(株)文化放送·京鄕新聞硏修室長〉

京鄕間 紐帶강화

韓 相 範

『東友會報』는 東友들의紙上 광장이다。여기서東友들의 첨예한 소식과 母校의 동정이 전해지고、동우들의 대화에접할수 있다。『東友會報』에 대한 주문이 있다면 동우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지면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2면의「東友提言」이란고정란이 있지만、어떤 한개의 쟁점을 놓직 대담하게 다루는 비평란이있으면 한다。예를들면 동우회보를 창간한지벌써 1년이 되었다。모교는 졸업생의 정신적인고향이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동우회보는 졸업생과 모교를 연결하고몸문 상호간의 親和를증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교에 대하여 누가주인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애기에앞서 졸업생이 사회로 출발하고 활약하는 기반은 모교에서 나와야 한다。그러기 때문에 동문은 모교에 대하여 뜻있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흩어져있는 동문소식을 서로 알게하고 모교의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을 동우회보는 효과적으로 감당해나가야 하겠다。



巨視的 眼目긴요

鄭 世 鉉

에를들면 모교 사무직원으로서 양심과 진실에 입각하여 말없이 모교에 기여하고있는 동문이라던가 사회에서 刻苦의 노력으로 성공한 동문의애기를 찾아내어 동문간의 情誼를 밀바닥까지 연결시켜나가는 것이 좋을성싶다。〈57·史學·漱明女子大學校도서관장〉

동우회보를 창간한지벌써 1년이 되었다。모교는 졸업생의 정신적인고향이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동우회보는 졸업생과 모교를 연결하고몸문 상호간의 親和를증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교에 대하여 누가주인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애기에앞서 졸업생이 사회로 출발하고 활약하는 기반은 모교에서 나와야 한다。그러기 때문에 동문은 모교에 대하여 뜻있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흩어져있는 동문소식을 서로 알게하고 모교의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을 동우회보는 효과적으로 감당해나가야 하겠다。

동우회보를 창간한지벌써 1년이 되었다。모교는 졸업생의 정신적인고향이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동우회보는 졸업생과 모교를 연결하고몸문 상호간의 親和를증진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교에 대하여 누가주인이고 주인이 아니라는 애기에앞서 졸업생이 사회로 출발하고 활약하는 기반은 모교에서 나와야 한다。그러기 때문에 동문은 모교에 대하여 뜻있는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흩어져있는 동문소식을 서로 알게하고 모교의 소식을 알려주는 기능을 동우회보는 효과적으로 감당해나가야 하겠다。

創刊1周年 우리의 善隣 東友會報에 바란다

나의 提言



朴 鎬 植
〈高麗大高友會報편집국장〉

全體的 共感性 反映되길

特殊性格紙로서의同窓會報의나아갈 방향이라면「同窓相互間對話와 總和의 廣場」「母校傳統의 확립과 傳授의메신저」「母校와 同窓의 成長과 發展의편달자役」등으로 압축할수 있겠다。

그렇다면첫째、同門動靜欄에주력해야한다。同窓會報의발전은특별한 動靜을 다루는 인내와끊임없이 달려있다。

둘째、숨은 讀者를 발굴하고 그들의기대를 충족시켜 全體的 共感性을 反映하는 會報가 되길 바란다。



鄭 鳴 秀
〈서울大同窓會사무처장〉

빛나는 傳統 矜持삼아야

東國大學校를 이룩한것이 다。우리나라 역사발전에있어 新羅、高麗、李朝時代에 걸쳐불때 政治、社會、文化 특히 국난시에있었던 불교계의 공헌사는 혁혁한것이다。이러한 역사적 민족적 사명위에 설립발전하고 있는 東國大學校는 수하를 不問하고 그 전통을 존중할것이며 특히 최근에 1억원의 장학기금이 동창의 母校愛로써 이룩되고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반면 부러워하지않을수없다。

東友會報가 東國大學校동창의 모든동정을 반영하고 창달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할때 고사



朴 仁 圭
〈延世大同門會 幹事〉

諸難關극복하는 슬기 表現

東國大學校同窓會가 뒤늦게나마 東友會報를 發刊하기 시작하여 어언 한돐을 맞게 되었음은 이제 母校와 동문들의 대화에접할수 있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同人으로서 무엇보다 크게 축하해야할일이다。

이 東友會報 역시 東國大學校의 발전및 동창회의 발전에발맞추어 발전의 尺度가 결정되겠지만、어떤 한 同門들이 이를 이끌어가는 동창회보가 餘他 기구를 통하여 다음과같이 몇가지 제언을 감히 드린다。

첫째、同門모두가 읽을것과 읽을수 있도록 배부에 힘쓸것과

둘째、同門의 관심과 모든소식을 전할수있는 愛校태세를갖추고

세째、同門을찾아 적극적인자세로 製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모든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는 實務者들의 노력을 기대한다。지치고 나태해지기쉬운 同窓會 사업일을 격려하고 다음과같이 몇가지 제언을 감히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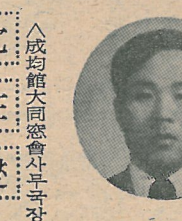
첫째、同門모두가 읽을것과 읽을수 있도록 배부에 힘쓸것과

둘째、同門의 관심과 모든소식을 전할수있는 愛校태세를갖추고

세째、同門을찾아 적극적인자세로 製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모든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는 實務者들의 노력을 기대한다。지치고 나태해지기쉬운 同窓會 사업일을 격려한다。

建學精神 살리는 企劃物도



沈 在 燮
〈成均館大同窓會사무국장〉

創刊1周年을 축하하며、3萬 東國人의 架橋役割을 십분 行하며、東友에게 至大한 功獻하였다고 본 理由는 다음과 같다。

開校71년이란 古稀를 지난 悠久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3萬의 英才를 배출하고 있는 東國대학교는 회고해보면 1945년이전 日政時에는 日人이 식민지정책으로 우리 韓民族에대하여 교육

첫째、同門動靜이 本誌에 永續的으로 發展하여 會報를 통하여 同門들이 서로 알고 보관할 수 있는 價值性있게 永久히 보관할 수있도록 하는것이 본한이다。

둘째、東友提言이란 코너는 同門들의 活動을 展示하고 相互間의 發展的인 意見을 提示하고 討論할 수있는 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母校에 대한 協力은 말이 많은만큼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있어야 한다。그 理由는 主人은 아니다。오직 在學生도 아니다。敎授、卒業生도 主人이기 때문에 主人이 아니다。또한 同人으로서 提言하고 協力하는 것이 본한이다。

朴 東 鎭
〈延世大同門會 幹事〉

諸難關극복하는 슬기 表現

東國大學校同窓會가 뒤늦게나마 東友會報를 發刊하기 시작하여 어언 한돐을 맞게 되었음은 이제 母校와 동문들의 대화에접할수 있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同人으로서 무엇보다 크게 축하해야할일이다。

이 東友會報 역시 東國大學校의 발전및 동창회의 발전에발맞추어 발전의 尺度가 결정되겠지만、어떤 한 同門들이 이를 이끌어가는 동창회보가 餘他 기구를 통하여 다음과같이 몇가지 제언을 감히 드린다。

첫째、同門모두가 읽을것과 읽을수 있도록 배부에 힘쓸것과

둘째、同門의 관심과 모든소식을 전할수있는 愛校태세를갖추고

세째、同門을찾아 적극적인자세로 製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모든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는 實務者들의 노력을 기대한다。지치고 나태해지기쉬운 同窓會 사업일을 격려한다。

建學精神 살리는 企劃物도

沈 在 燮
〈成均館大同窓會사무국장〉

創刊1周年을 축하하며、3萬 東國人의 架橋役割을 십분 行하며、東友에게 至大한 功獻하였다고 본 理由는 다음과 같다。

開校71년이란 古稀를 지난 悠久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3萬의 英才를 배출하고 있는 東國대학교는 회고해보면 1945년이전 日政時에는 日人이 식민지정책으로 우리 韓民族에대하여 교육

첫째、同門動靜이 本誌에 永續的으로 發展하여 會報를 통하여 同門들이 서로 알고 보관할 수있는 價值性있게 永久히 보관할 수있도록 하는것이 본한이다。

둘째、東友提言이란 코너는 同門들의 活動을 展示하고 相互間의 發展的인 意見을 提示하고 討論할 수있는 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母校에 대한 協力은 말이 많은만큼 그 意義는 자못 크다고 있어야 한다。그 理由는 主人은 아니다。오직 在學生도 아니다。敎授、卒業生도 主人이기 때문에 主人이 아니다。또한 同人으로서 提言하고 協力하는 것이 본한이다。

朴 東 鎭
〈延世大同門會 幹事〉

諸難關극복하는 슬기 表現

東國大學校同窓會가 뒤늦게나마 東友會報를 發刊하기 시작하여 어언 한돐을 맞게 되었음은 이제 母校와 동문들의 대화에접할수 있는 한사람으로서 또한 同人으로서 무엇보다 크게 축하해야할일이다。

이 東友會報 역시 東國大學校의 발전및 동창회의 발전에발맞추어 발전의 尺度가 결정되겠지만、어떤 한 同門들이 이를 이끌어가는 동창회보가 餘他 기구를 통하여 다음과같이 몇가지 제언을 감히 드린다。

첫째、同門모두가 읽을것과 읽을수 있도록 배부에 힘쓸것과

둘째、同門의 관심과 모든소식을 전할수있는 愛校태세를갖추고

세째、同門을찾아 적극적인자세로 製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모든여건을 극복하여 최선의 방도를 강구하는 實務者들의 노력을 기대한다。지치고 나태해지기쉬운 同窓會 사업일을 격려한다。

母校消息

母校 소식

東國祝典 화려한 開幕

「勇猛精進하는 東國」다짐

連4日間 學術競進會등 盛況

五月의 東岳을 화려하게수놓았던 東國祝典이9일 前夜祭를 시작으로 12일까지 連4일간의 일정을마치고 前進의 意志를 되새기는 25발의 폭죽과 캠포화이어를 끝으로 폐막되었다。

개교71주년기념행사로개최된 이번 祝典의 마지막밤을 장식한「白象宴」은 제1부 노래하는곳에 (TBC라디오 공개방송)、제2부 쌍쌍카니발順으로 열렸다。

대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펼쳐진 제3부에는 李瑄根총장、崔載九동창회장을 비롯한 同門50여명과、學處長및 學生5천여명이 성황을 이룬가운데 박진관 (숭가친) 詩人의 祝詩「타오르는 횃불」낭송이 있었다。

이어「勇猛精進」점화식이 있은후 祝典行事 정점으로 어둠을 밝힌「캠포화이어」가 개교71주년을 알리는25발의 폭죽이 東岳의 하늘을 수놓음으로써 도약동국을 다짐하며「東國祝典」도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번 東國祝典행사들은다음과 같았다。

◇9일‖▲전야제 (①축전 ②동국인의향연 ③행운권추첨)

◇10일‖▲수계대법회▲연무대회 ▲새한국의노래▲중앙교제 ▲민속예술제 ▲철학강연회 ▲경로잔치 ▲초청강연회 ▲사격대회 ▲반공강연회 ▲어머니와 딸。

◇11日‖▲工大학술경진▲모의주주총회 ▲옥야잔치▲교양강좌 ▲방송제 ▲東國文學燕 ▲써클연합춘극경연 ▲스피치대강좌 ▲고전민속놀이 ▲바독대회

◇12일‖▲마라톤 ▲씨름대회 ▲師大학술경진 ▲영어스피치콘테스트 ▲백상연 ▲부처님 오신날 ▲2521년 맞아 母校에서는 灌佛행사를 갖는다。

한편 축전기간을 前後하여 꽃꽂이、서예전시회、사진전、강원도산골어린이 초청、풍물전시회、취미전시회、연극공연、시화전、미술과 소품전、박물관 전시회、경영대학원세미나、전국고교동구대회、高校文學공부로등을 열었거나 앞으로 펼쳐질예정이다。

「부처님 오신날」奉祝

護國大法會등 각종행사

25일 (음력4월초파일)「부처님 오신날」2521년을 맞아 母校에서는 灌佛행사를 갖는다。

자비와 지혜로 佛國淨土의실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母교를 비롯한曹溪宗산하의 각 佛敎團體및 曹溪宗立學院의 신도와 학생들은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護國祈願大法會등 佛誕의 거룩한 뜻을펼칠 갖가지 奉祝행사를 베풀게된다。

造景技士試驗

2級에3명合格

母교造景學科 3학년 金錫鉉 曺永彩 沈昌鎭군등3명이 한국기술검정공단이주관하는 제2회 국가기술시험 2급조경기사시험에 합격했다。

黃壽永교수

5·16賞장려상

母교 黃壽永 (박물관장) 교수가 77년도5·16민족상 학예부문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되어 지난16일 青瓦臺에서 수상을 받았다。상금은 2백만원。

行政考試 3명合格

南載祐·林英鹿·張建相君



◇南載祐군



◇林英鹿군



◇張建相군

母校 南載祐 (政外·4) 林英鹿 (行院1·계획행정전공) 張建相 (行院1·조직관리전공) 군등 재학생3명이 제20회 행정고시에 최종합격했다。지난 4월27일 총무처에서 발표한 이번행정고시 2차시험 합격자는총 55명으로 母교에서는 3명이합격한 것이다。

「生命輕視풍조 배격을」

曹溪宗 李宗正 佛誕 메시지



대한불교조계종 李西翁 하여 새마음을 갖자」고

「(35·中專) 풍정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20일、불탄 (佛誕) 메시지를 통해『오늘의 세계는 인간소외、생명경시의병리적 현상을 빚고있다』고 지적、『과학문명을 재창조 하여 새마음을 갖자』고 曹溪宗 李宗正 佛誕 메시지를 통해『오늘의 세계는 인간소외、생명경시의병리적 현상을 빚고있다』고 지적、『과학문명을 재창조 하여 새마음을 갖자』고 西翁종정은 또한『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신음과 고통속에 살고있는 북한동포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내리길 기원한다』고말했다。

政策과제 研究費千73萬원

文敎部서, 張源宗敎授등5명에게

國家發展을 위한 政策課題研究와 관련、문교부에서 각大學에지급하는 연구비施惠對象에 본교에서는 張源宗 (經商大) 교수등5명의 연구論題가「문교부학술연구조성심의회」의 심의를 통과、총1천73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게되었다。(괄호안은 개인별 연구비)

▲金熙圭 (物理學)‖초음파減衰에 의한 물속의결함에 관한연구 (2백83만원)

▲張源宗 (經濟學)‖제4차5개년계획의 효과적인추진을 위한 工業技術및 人力開發정책 (1백50만원)

▲金周弘 (電子學)‖도로교통의 이론적 해석 (2백20만원)

▲裵鎭根 (교육학)‖교육투자 적정화와 경제적효과에 관한 연구 (3백만원)

▲申宗淳 (行政學)‖임시행정수도설치에 따른 中央行政기구의 이전배치에 관한고찰 (1백20만원)

母校人事

▲總務處長‖金翰周

▲체육지도부장‖金尙民 (신설)

▲行政大學院學監‖兪光震

▲學生指導課長‖羅彦杓

▲學生課長‖金漢宗

▲行政大學院교무주임‖朴在憲

▲學生지도課주임‖趙在浩

▲學生課학생주임‖姜昌淳

▲學生課병사주임‖成芝鉉

年會費 납부자 名單

▲閔慶哲 (69·法) ═5,000원
<2年半分>
▲金致洪 (74·경영) ═2,000원
▲權亨道 (63·農) ═〃
▲鄭福溶 (60·政) ═〃
▲黃忠南 (67·經) ═〃
▲朴喆鉉 (73·經) ═〃
▲黃應秀 (58·農) ═〃
▲李敏應 (〃) ═〃
▲崔佳秀 (65·國) ═〃
▲黃榮吉 (70·경영) ═〃
▲金洋一 (63·農) ═〃
▲金大元 (65·經) ═〃
▲趙一來 (75·經) ═〃
▲高駟錫 (49·專門) ═〃
▲沈載運 ( ) ═〃
▲장우상 (73·農) ═〃
▲朴鎭洙 (66·農) ═〃
▲吳弘明 (66·農) ═〃
▲韓昌愚 (59·經) ═〃

廣告料 납부자 名單

▲李稙憲 (69·林) ═2만원 <5·6호>
▲崔泰鍾 (59·佛) ═1만원 <11호>
▲姜化燁 (59·經) ═1만원 <12호>
▲鄭達泳 (58·農) ═1만원 <12호>
▲黃應秀 (58·農) ═1만원 <12호>
▲池昌勳 (49·전문) ═1만원 <12호>
▲61년政治科·經濟科═4만원 <12호>
▲宋鍾辰 (76·經院) ═1만원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崔正憲 (72·行院) ═40,000원 <76·77年分>

幸運賞品협찬

(모교東國祝典行事)

▲崔載九 (52·國文·동창회장) ═자전거
▲文泰植 (49·전문·동창회부회장) ═FM라디오
▲朴恩會 (61·英文·동창회부회장) ═탁상시계
▲韓應國 (43·惠專) ═살충·살균방지함
▲閔容植 (49·專門) ═金一封
▲金鍾洙 (59·經) ═〃
▲孔珍植 (61·經) ═〃
▲權永弼 (61·經) ═편자계산기
▲金世炯 (66·商) ═탁장초 메권 50매
▲鄭奎完 (65·經) ═金一封
▲서영진 (61·經·대한가속센타) ═그라스 1셋트
▲송 진 (74·工經) ═사진촬영권 5매
▲장동락 (77·政外) ═테니스라켓
▲太平洋化學東友會 (회장═韓東根) ═화장품30셋트

祝 東國大學校開校71周年 慶

亞洲産業(株) 代表理事 文泰植
京東興業(株) 代表理事 李鍾泌
一宇海運(株) 代表理事 閔容植
大韓毛紡(株) 代表理事 金聖涉
롯데제과工業(株) 代表理事專務 辛俊浩
青商社(株) 代表理事 柳周馨
起亞産業(株) 代表理事 金相汶
韓國醱酵工業(株) 代表理事 崔正憲
世光貿易(株) 代表理事 金明魯
東南建設(株) 代表理事 張相敦